

12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2006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창세기 · 출애굽기

마가복음 · 누가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2

2006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창세기 · 출애굽기

마가복음 · 누가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릴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 ③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눅 19:38)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도저히 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한 마굿간에서 나셨습니다.
그분의 주위에는 낮고 천한 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은
온 세상 땅 끝으로 퍼져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사 41:13)
이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상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2006년 12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썩은 누명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던 고위 관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이들은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관원장들에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물었으며, 그들이 꾸은 꿈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들이 꾸은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몽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극형에 처해집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14절).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약 2년 정도를 더 머물러 있어야만 하였습니다. 감옥을 나가고 싶은 요셉의 마음과는 달리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뵈었다 싶을 때까지 더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요셉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감옥이라는 자리에서 요셉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요셉과 같이 커다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감옥과도 같은 곳은 아닙니까? 우리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창 40:21,22)

기도 제목 ① 현재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더욱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요셉은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도 풀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그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애굽 땅에 임할 극심한 흉년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함으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극적 상황 진전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입증해 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 떠나 먼 이국에서 살아야만 했으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옥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하셔서 애굽의 총리를 삼으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목전의 현실로 인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현실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창 41:38)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깨달은 일꾼으로서 헌신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야곱의 일가를 애굽으로 이주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실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홍년은 애굽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있어 애굽으로 내려갔었고(12장), 이삭 때에도 홍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랄 땅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26장). 야곱도 노년에 홍년을 만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으며,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로써 오래 전에 요셉이 꾸 꿈이 실현되었습니다(37:19,20). 형들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무산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요셉은 자신 앞에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형들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시치미를 떼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세웠습니다. 그들의 해명을 들은 요셉은 시므온을 불모로 삼아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으로써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일가를 애굽에 와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함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준비를 이렇게 오래 전부터 진행시키셨습니다.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창 42:20)

기도 제목 ① 삶의 매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소서. ② CMTC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야곱은 일단 움켜 잡으면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일생동안 놓치지 않고 굳게 부여잡기를 원하였던 것은 '재산' 과 '사랑'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다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움켜잡았던 것마다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명분을 움켜잡으면 아버지의 부와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는 달랑 지팡이 하나 의지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곱은 사랑을 움켜 잡았습니다. 라헬을 붙잡고 14년 동안 어떻게 세월이 가는 지도 모르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는 재산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듭니다. 야곱이 온갖 정성을 다해 모았던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당장 먹고 살 세 끼 양식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재산도 사랑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직 베냐민 하나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빼앗아 가기 전에는 놓은 적이 없던 베냐민을 야곱이 자진해서 내려놓습니다. 집착의 손을 놓아 버리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이제까지 야곱을 존재하게 했던 커다란 힘이 되었던 재산과 사랑에 대한 집착이 하나로 투영되었던 베냐민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좇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창 43:14)

기도 제목 ① 이 세상의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② 2007년 선교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요셉은 형들의 마음이 자신을 팔아 넘길 때와 같은 지 아니면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형들을 시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은잔을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서 베냐민을 도적으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요셉을 잃고서 베냐민을 각별히 아끼며 살아온 아버지 야곱을 생각할 때, 형들은 도저히 베냐민을 버려두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유다는 동생 대신 자신이 처벌받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의 무죄를 밝히려고 애쓰기 보다는 다만 총리의 은총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 가운데 종종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설득으로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 노예로 팔았습니다(창 37:26,27).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의 애급행을 동의하였습니다(창 43:3-15). 이번에도 유다는 총리 앞에서 호소합니다. 그의 호소는 단지 임기응변적인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승화된 인격에서만 우러 나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며 동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가룩한 마음을 가진 것에서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연상합니다. 이러한 유다의 태도는 요셉을 파격적인 감동의 상태로 몰아 넣으면서 스스로의 정체를 밝히게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요셉은 전과는 다른 형들의 완전한 변화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에게는 유다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였듯이 믿는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교하게 하소서”(창 44:18)

기도 제목 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이웃에게 온전하게 증거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유다의 헌신적인 탄원을 듣고서 마침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형제끼리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왔지만 그 사건의 배후에는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요셉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요셉의 신앙의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올라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놀라게 됩니다(25-28절).

이처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인생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 크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당장 우리 인생에게는 슬퍼 보이고,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순간순간 붙드시며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우리들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만나 힘들어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이 때 선불리 주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창 45:5)

기도 제목 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는 그들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으로 빚어 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실행되었습니다(3,4절). 사실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표면적인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근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애굽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독특한 민족의식을 함양시키기에 매우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그들의 민족적 우월감으로 인하여 타민족과의 교류를 기피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축하는 자들을 혐오하였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일족들은 가나안에서와는 달리 애굽에서는 이방 문화에 동화될 위험이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라볼 때 자신의 좁은 틀로 바라보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큰 틀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주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한 과정 한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매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창 46:34)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② 각 위원회와 교구, 부서를 섬기는 남녀 교역자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진리를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야곱이 자신의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마침내 야곱의 자손들은 단 순히 일개 지파가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로서의 기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바로 왕에게 고센 땅에 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4절). 애굽인들과 떨어진 고센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애굽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목축업에 종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착과정에는 당시의 최강대국인 애굽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번창케 함과 동시에, 애굽 내에서는 따로 분리시킴으로 영적인 순수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고센에 정착했던 야곱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정착기간이 그렇게 오래 길어질 것이라는 사실과 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경륜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미처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경륜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경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경륜이요,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는 최후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창 47:4)

기도 제목 ① 주님의 구원경륜을 신뢰하게 하소서. ② 크리스마스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야곱은 마침내 죽음을 앞에 두고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축복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으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16절). 이것은 야곱의 평생을 지탱해 왔던 것이 물질이나 건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여호와 신앙과 그 언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였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것은 역시 신앙입니다. 이처럼 본 장은 성도들이 자신의 일생을 인간의 힘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택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 장에서 축복이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임한 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언약의 계승이란 인간의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구원사건에 있어 그 선택과 섭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이요, 고유한 사역임을 본 장의 야곱 축복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딤후 2:14).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결과임을 믿고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므낏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없었더라”(창 48:14)

기도 제목 ①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② 126개 전도회 회원들에게 영혼 구원의 열심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 야곱은 흔히 ‘야곱의 축복’으로 불리는 예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11절). 그것은 열두 아들의 장래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은 축복과 저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자신의 의지나 편견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미래에 대한 야곱의 대언일 뿐입니다. 특히 본 장의 야곱의 예언은 열두 아들의 장래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장의 내용을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할 점은 야곱의 예언을 근거로 하여 인간의 모든 삶은 이미 운명지워진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실제 삶에서도 매사에 수동적이며 무기력한宿命론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은 열두 아들 각자의 행위와 전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성정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과 책임 간에는 갈등이나 충돌이 없음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엡 1:9).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의 믿음의 행위가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변함없는 확신입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창 49:1)

- 기도 제목 ①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소서.
 ② 2007년 CMTC훈련을 섬기는 분들이 성령과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약의 족장 중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야곱과 요셉은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야곱과 요셉의 강력한 유언 때문이었는데, 특히 요셉은 후일 후손들의 출애굽을 예견하고 그 때 자신의 유골을 함께 가지고 올라 가라고 유언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은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25절). 막벨라 굴을 중심으로 족장들이 보이고 있는 이같은 가나안 땅에 대한 집착은 그 곳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이란 오직 가나안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약속의 땅’ 사상으로 종말론적으로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과 목표는 눈에 보이는 지상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종말에 있게 될 심판과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백성이라면 믿음의 족장들이 그러했듯이, 자신이 영원히 거해야 할 곳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 11:16). 우리의 본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창 50:5)

기도 제목 ①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믿게 하소서. ② 파송을 준비하는 팀들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시며, 파송 받은 팀들이 복음을 전한 선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급속한 번성을 두려워하여 극심한 노동과 산파를 통한 남아살해로 이스라엘을 말살코자 하였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피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16절).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도 속에서도 십브라와 부아와 같이 연약하지만 신실했던 믿음의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더욱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가해졌던 애굽의 탄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필연적 개입을 불러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당하는 성도의 고난과 시련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완전한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큰 구원경륜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장은 고난기에 접어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소개함으로써 환난 중에도 성도들과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를 통해 자울성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부디 임마누엘의 복음을 지금 죄와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출 1:20)

기도 제목 ① 고난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②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모세는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자 애굽의 궁정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친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란 모세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동족의 고난을 차마 보지 못했던 모세는 애굽의 병사를 쳐 죽이고 결국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12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모세의 혈기와 영적 미성숙을 지적하지만, 사실 이러한 해석은 진실의 한 단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킨 것입니다. 즉 모세가 40년이 흐른 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마침내 이스라엘 구원의 큰 사역을 담당하게 된 것도 실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동족을 사랑하고 고난에 동참하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히 11:24-26)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성숙도 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으려는 모습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주님께 모든 시선을 둘 때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누리는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가억하시라”(출 2:24)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 하나님은 혈기왕성한 젊은 모세가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목자로 늙어가던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10절). 이에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며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둘러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구원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과 기적을 통해 거듭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셨던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철저한 자기부인이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어내셨던 예수님처럼, 철저한 자기부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할 때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신앙자세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라도, 주님이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 3:5)

기도 제목 ① 철저한 자기부인이 있게 하소서. ② 당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며, 장로님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표징으로 보여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하여 당시의 최강대국인 애굽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손을 문둥병에 걸렸다 낮게 하는 이적들을 모세에게 차례대로 보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6절). 이 이적은 모든 만물을 뜻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다스리는 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이적 또한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성경에 그토록 많은 이적들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행 17:3). 예수님은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시며, 모든 죄인들이 의지할 소망의 주님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온전하고도 확신에 찬 신앙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 1:4).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출 4:5)

기도 제목 ① 온전한 신앙고백이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예배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바다 곁 육지에 있는 무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후, 제자들로 하여금 배로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35절). 그런데 이 항해 길에 광풍이 닥쳤고 거의 파선 직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물결이 일어나 배가 이미 물로 가득 차 있는 이 때에도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절규하며 주님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막힌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주무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평강을 소유하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사명의 길에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이 아무리 험하다 해도 그것은 끝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이 항해 길은 주님이 주도하셔서 가자고 하신 길이며, 주님이 또한 이 사명의 길에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40절)라고 제자들에게 던지신 주님의 물음이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처럼 끝없는 경종으로 남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 주님, 그분이 이 배의 선장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위대한 구주이십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막 4:41)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총현의 천국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은 아이로와 함께 죽게 된 딸을 고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출현하면서 예수님의 행보는 약간 지체되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치유는 딸의 치유를 위해 존각을 다투어야 했던 아이로에게는 방해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로에게 일종의 신앙교육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12년 된 절망적인 고질병을 고치시며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34절)라고 하신 주님의 선언은 아이로의 신앙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하인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적적 치유를 목도하지 못했다면, 그 비보 앞에서 주저앉아 버렸을 지도 모릅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35절)라며 포기를 권하는 사람들, 통곡하며 현화하는 무리들의 모습은 죽음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연인들의 연약함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36절)라고 독려하십니다. 그리고 현화하는 자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말씀하시며 신앙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현화하고 우는 자들을 다 내어 보내십니다. 그런 후에 소녀의 부모와 세 제자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불신자에게 죽음은 삶의 절망으로 다가오지만 신자에게 죽음은 다음 날의 더 나은 삶의 휴식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달리다굼”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막 5:41)

기도 제목 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출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1인 1명 이상 전도함으로 영혼을 건지는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제자들의 전도 파송(7절)과 전도 보고(30절) 사이에 '세례 요한의 수난 기사 (14-29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열두 제자가 파송되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즉 그들이 선교하는 동안 세례 요한의 수난 기사를 기술함으로써 복음 전파의 중심 내용이 '죽음과 부활' 임을 암시해 줄 뿐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삶이란 '수난의 삶'임을 시사해 줍니다. 즉, 수난은 이 죄 많은 세대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삶을 잘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수난은 다가 올 예수님의 수난의 그림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헤롯은 진리에 대해 달게 듣고 근심했지만, 자신의 체면과 명성에 급급해 결국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니다.

복음을 위해, 의를 위해, 주님을 위해 홀로 서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복음으로 인해 시련이 찾아올 때, 헤롯처럼 어느 정도 심히 근심하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해 진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의연하게 일어서서 수난을 맞이합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그가 실패한 전도자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친' 사명의 완성자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막 6:12)

기도 제목 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게 하소서. ② 선교위원회에 세움 받은 모든 일꾼들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더러운 귀신에 의해 고통당하는 어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25절).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와 엎드리어 딸의 구원 즉, 귀신이 쫓겨 나가기를 간청합니다. 특히 “곧 와서”라는 표현과 “그 발 아래 엎드리어… 간구”한다는 표현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의 상태의 심각함과 그 딸을 고치려는 어머니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을 잘 묘사해 줍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행동은 즉각적인 행동이었을 뿐 아니라 필사적이고 겸손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겸손하고 간절한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일차적인 반응은 모욕적인 거절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모욕적인 대답에도 아랑곳없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응답했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28절). 여인의 대답은 하나님의 돌봄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선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놀라운 능력에 호소하면서 부스러기라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분이나 유대인과의 갈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특이한 반응입니다. 그녀는 딸의 치유를 위해서 이러한 모멸과 거절의 벽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끈질긴 간구는 응답을 받았고, 그 간구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막 7:29)

기도 제목 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② 총현복지관이 복음으로 견고케 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헤르몬산 아래에 자리 잡은 도시로, 헬라시대의 판(Pan) 신전이 있을 뿐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해룻이 건축한 거대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이 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7-29절)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 라고 고백했고, 여기에 주님은 자신의 고난에 관한 예언의 말씀(31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사역을 오히려 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엄히 책망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도 이와 같은 태도와 행동을 취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다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34절). 메시아의 길과 제자의 길은 동일한 삶의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메시아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그분을 따르는 제자는 고난을 통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고난 없는 생명은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막 8:34)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죽음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며 쟁론하고 있습니다(34절).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 길에서 이와 같은 논쟁을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의 비극이며 현실 교회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이 논쟁은 제자들이 맨 처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어떤 의도와 동기에서 시작된 것인지 궁금하게 합니다. 더 많이가지고 더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면 여전히 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며,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걸어갈 길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가장 큰 원수는 내 속에 숨어 있는 무서운 죄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43절). 사실 이 '길'에서 '금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나 우리와 방법이 다른 형제들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유약한 사람,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따뜻하게 영접해야 할 대상입니다. 주님은 문제의 근원이 되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에 대해 엄격하고 급진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범죄하거든", "찍어 버리라", "빼어 버리라"라는 것입니다(43-47절).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주의 보혈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막 9:43)

기도 제목 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보혈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소서. ② 안수집사들이 선교에 열심을 갖고 열방으로 나가 복음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17절). 우리는 이 모습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그의 사모함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만큼 컸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할 만큼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 진지한 자세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만족이나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난 뒤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4:3-20)에서 말씀하신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와 유사합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다는 의지요 결단입니다. 신앙은 문자적으로 계명을 실천하는 엄숙한 삶을 넘어서, 하늘의 보화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막 10:17)

기도 제목 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② 연합 찬양대의 메시아 연합 찬양이 만왕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장을 구성하고 있는 두가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과 '정전 청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가랴 9:9의 성취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나귀 새끼 위에도 겹옷을 엮고, 겹옷을 길 위에 펼쳐 놓은 행위는 구약의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과 관련해 예수님이 왕임을 암시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마른 것은 타락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타락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은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또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자신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정치, 경제를 도우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얻게 해 주시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셨지만 겸손히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 지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지는 부와 명예, 인기, 권력과는 전혀 다른 것 즉,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막 11:10)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② 모든 새 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건축가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은 시편 118:22,23의 인용입니다. 이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구절로 베드로나(행 4:11; 벰전 2:7) 바울도(엡 2:20) 이 구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의 환영을 밝혔습니다. 건축가들, 즉 유대의 지도자들이 '돌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버려진 돌은 천대반거나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시 147:20).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주님은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에게 거부당하여(마 27:22,23; 막 15:13; 눅 23:31) 십자가의 형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버린 자는 유대인, 얻은 자는 이방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유대인이 무시하고 거역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는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시각에서는 무가치한 존재였으나, 예수님 스스로는 산 돌로 많은 생명을 구하시고(벰전 2:4), 동시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큰 심판을 예비하셨습니다(벰전 2:7,8).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한 자들도 많습니다(마 21:4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춧돌이자 머릿돌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또한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막 12:10)

기도 제목 ①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②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보장받는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마 5:11,12). 주님이 말세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 당하고 미움을 받으리라고 한 말씀은 '참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수욕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참 제자들을 미워합니까? 이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풍조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까닭이요(요 15:18), 그리스도의 참제자와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요 15:19). 다만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거짓 성도, 거짓 교회로부터도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즉 인본주의적 철학 사상에 오염된 교회, 물질주의에 오염된 교회들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구세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참 교회와 성도들을 오히려 업신여기고 이단시하게 될 때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라는 이름을 성경과 사도들이 증언하는 대로 '죄에서 구원할 자'(마 1:21)라는 의미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구시대적 보수 주의자'로 깔보고 업신여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 미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풍조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전해 주신 십자가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그 진리가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충성해야 합니다(계 2:10).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막 13:1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며 의지하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하는 성탄절 감사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를 대망한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엄청난 고통을 앞에 두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감내해야 할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려는 강한 결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님 자신은 피하고 싶었던 잔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바라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맞추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순복시켜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바람과 뜻을 포기한 것은 절망이나 좌절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그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뜻을 포기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중간적인 태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함에는 때로는 죽음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

기도 제목 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게 하소서. ② 세움을 입은 모든 봉사자들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자신을 희생함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루살렘 성에서 골고다까지 이르는 길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로마 병정들의 채찍과 가시 면류관, 심한 조롱 행위 등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예수께 그 길은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관례는 죄인을 끌고 가는 길은 최단의 거리가 아닌 최장의 거리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 즉 '슬픔에 찬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길은 주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이란 영문 밖으로서(참조, 레 16:27), 이곳은 유대인의 허물과 죄를 처리함으로써 유대인들을 거룩케 하는 곳을 상징합니다(히 13:12). 골고다는 주님이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린 장소요, 인류를 대신해 하나님께 죄의 형벌을 당하신 장소입니다. 이 골고다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 아니라 '생명의 곳'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히 13:13)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막 15:22)

기도 제목 ①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② 위임목 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무덤의 돌문은 이미 열려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거의 죽은 자처럼 떨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찾아온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거기에 있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놀라고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막 16:6a). 나사렛이 고향인 예수는 부활하셨고 천사는 이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비로소 ‘주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열려져 있는 돌무덤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열려져 있는 무덤은 이미 무덤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곳은 곧 ‘부활’을 입증하는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열려진 무덤,’ 이 때부터 모든 무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권능을 잃었습니다. 이제 무덤은 하늘을 향하여 그 문을 열어 놓은 것이며, 무덤의 문은 더 이상 죽음의 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은 모든 인간을 진리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이 영혼과 육체를 함께 구원하는 전인적 구원임을 입증하고, 인간의 생명을 사단의 지배로부터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로 옮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승리이며 확증이고 모든 진리의 정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막 16:6)

기도 제목 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권사회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며, 소외된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냄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을 명했습니다. '예수'란 헬라어로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이며 보통 줄여서 '여수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여호와와의 구원'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날 때부터 인류 구속을 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은 당신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바쳐 인류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신을 빌어 태어나셨을 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야 했으며, 키운 후에는 자신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데 순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마리아가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예수께서는 다시금 이것을 깨우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눅 2:49). 비단 예수님의 경우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아이가 자라 큰 자가 될 것을 아울러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큰 자가 되지 않으셨고 또 세속적인 방법으로 큰 자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큰 자가 되셨으며, 많은 학문이나 영웅적인 공로가 아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큰 자가 되셨습니다(빌 2:8-11). 이것은 과연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떠한 목표로 살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께만 인정받는 목표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눅 1:31)

기도 제목 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와 모든 대원들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굿간의 구유에 나신 사실은 메시아의 겸손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때에 마침 호적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많은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향인 베들레헴을 찾았습니다. 여관이 가득 찼으므로 예수님께서 여관에서도 태어나지 못하고 마굿간의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비천한 신분으로 보잘 것 없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탄생하신 사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의 성격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의 왕과 같이 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난한 목수로서 천한 신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런 처지를 아무 데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표현하셨습니다(눅 9:58). 예수님의 이러한 비천한 신분으로서의 탄생과 삶은 그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서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장 극악한 자들의 사형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와 같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최하의 비천한 자리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죄인을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깨닫고 배워서 서로 낮아지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눅 2:7)

기도 제목 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만 높이며 순종하게 하소서. ② 모든 천국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이외에도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가셨던 변화산 산상에서와(마 17:5), 수난 주간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요 12:28) 다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공생애의 처음과 중간과 결말에 반복하여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격려하시고 보장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성부의 음성은 장엄한 음성이고 영광스러운 음성이었습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만족한 대상 즉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고 또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은혜와 진리를 모두 성취하여 완수하는 기쁨의 사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세례를 받으시고, 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며,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왕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눅 3:22)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에 늘 감격하게 하소서.
② 2006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은총에 감사하며 더욱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교재

12월 구역 교재 초점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의 낮고 천한 한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미 수백 년간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구주이십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1201	눅 1:26~38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라
1208	미 5:2	오 베들레헴 작은 골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1215	눅 1:30	무서워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라
1222	눅 2:8~14	천사들과 목자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1229	사 41:13~16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라

1. 구역 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 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라

| 찬 송 |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 본 문 | 누가복음 1:26~38

☞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찌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 ☞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에 의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서를 끝으로 그들의 성경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더 이상 선지자도 예언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눅 1:26,27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는 비천하고 낮은 한 여인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예상치 못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4백 년이란 긴 암흑의 시간을 깨고 마리아에게 기쁨의 복된 소식이 내려졌습니다.

※ 내가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하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천사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마리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게 했습니다.

눅 1:33 / 영원히 아곱의 집에 □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 하리라

물론 마리아에게도 자신만의 여러 가지 꿈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곧 결혼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자신의 아이들과 안락한 생활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그녀 앞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눅 1:28

눅 1:30,31

천사가 전해 준 소식은 그녀가 남자를 알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장차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눅 1:32 / 저가 큰 자가 되고 _____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_____를 저에게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영원이라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계획을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위에 세우기 위해 조심스럽고 신중해야만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었던 그녀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위를 이을 왕이 처녀에게서 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 7:14 /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가 잉태하여 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라 하리라

마 1:23 /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수세기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이제 그녀의 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는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34절) 가브리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눅 1:37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눅 1:35 /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눅 1:36 / 보라 네 친족 도 늙어서 이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깨달은 모든 것은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메시야입니다.

고후 5:17

요 1:12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의지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오직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2. 주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음을 믿게 해 주소서
3. 구역원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2과 오 베들레헴 작은 골

| 초 점 |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 찬 송 |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 본 문 | 미가 5:2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현재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더욱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크리스마스는 화려한 파티와 선물이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 현재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지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에는 ‘베들레헬 에브라다’라는 특정한 장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헬의 옛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9km 떨어진 이 작은 마을에서 이처럼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성경 말씀을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미 5:2

베들레헬은 모든 시대의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도록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신 장소였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구세주의 탄생이 예언된 장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은 구세주가 탄생하기로 예언된 장소였습니다. 이 곳의 역사와 상징하는 바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곳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은 후 세상을 떠났고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습니다(창 35:19).

사 53:3 / 그는 □□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를 많이 겪었으며 □□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 6:35 /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_____
나를 믿는 자는 _____

베들레헴은 또한 다윗 왕의 고향이었으며 사무엘은 그 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삼상 16:12,13). 다윗은 전쟁을 하는 중에 그 곳에 있던 우물물을 마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삼하 23:15).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4:10 / 네가 만일 하나님의 □□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를 네게 주었으리라

롯은 베들레헬 에브라다에서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룻 4:11). 그리고 그 곳에서 마침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작은 베들레헬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곧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날 장소로 택하신 곳이었습니다.

온 만물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장소

베들레헬은 온 만물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들레헬은 매우 작아서 유다 족속에 속한 마을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나오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미 5:2 / ... □□□□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얼핏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국을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아예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 말씀이 예언된 지 700년 만에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눅 1:31-33 /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_____
 저가 큰 자가 되고 _____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_____

오늘날 이 예언은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
 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장소

베들레헴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장소였습니다.

미 5:2 / ... 그의 근본은 □□에, □□에니라

성경은 성육신을 가리켜 하나님 자신이 종의 형체를 취하여 베들
 레헴에 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베
 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빌 2:5-7 / 너희 안에 이 □□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니 그
 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는 더욱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베들레헴의 구유 안을 볼 수 있으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약 4:6

작고 불품없는 동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 하신 곳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보지 못합니다. 그 곳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2. 죄인들에게 값 없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 은총을 찬송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소서.

3과 무서워 말라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라

| 찬 송 |

찬송가 108장 구주 탄생하심을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 본 문 | 누가복음 1:30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
를 얻었느니라

사람들은 살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또한 이 환난 때문에 사람들은 무서움 내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당합니다. 이 환난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요 16:33).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참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 환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경험을 토대로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무서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사가랴, 요셉 그리고 목동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눅 1:13

마 1:20

눅 2:10

“무서워 말라” 이 말씀이야말로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무서워 말라

죄인인 우리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걱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쉽게 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 걱정은 스트레스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하거나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요 15:10 / 내가 아버지의 □□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때 걱정은 사라지고 참 평안과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을 무서워 말라

먼저,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라고 말했다 때, 이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대해 무서워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예상치 않은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녀가 잉태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눅 1:34

천사가 말했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35절). 유대인의 율법에는 처녀가 결혼 전에 임신하면 돌로 치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유대 사회는 그녀에게 등을 돌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눅 1:38 / 주의 계집종이오니 _____

그녀의 대답 속에 왜 그녀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적을 받아들였고 그분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성육신을 위해 택함 받은 도구였습니다!

죽음을 무서워 말라

두 번째,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라고 말했다 때, 이것은 정말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조용히 그녀를 보내어 목숨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서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 1:20 /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으로 된 것이라

때로 커다란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납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집을 잃게 될 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무서워 말라

마지막으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라고 말했다 때,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마침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임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눅 2:10,11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눅 2:14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신자들의 가슴속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路

주님을 신뢰하고 아무 것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친 갑작스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요 14:1

빌 4:6,7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게 하소서
2.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소서
3.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4과 천사들과 목자들

| 초 점 |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 찬 송 |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함을

찬송가 118장 영광 나라 천사들아

| 본 문 | 누가복음 2:8~14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⑧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⑨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⑩ 오늘 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⑪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⑫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았습니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소식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눅 1:31

눅 2:8,9 /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
□가 곁에 서고 주의 □□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마 1:21

하늘의 천사는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그 때 하늘이 다시 열리더니 허다한 무리의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참으로 기적의 밤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또한 얼마나 놀랍습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구주 탄생의 메시지

하늘의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는 이 땅에 목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말했습니다.

눅 2:10,11 /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의 좋은 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구세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침내 약속된 메시야가 오신 것입니다(미 5:2).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부자나 고위 관리를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난하고 천한 목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눅 2:12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의 주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받은 목자들은 그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구세주는 아주 특별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찬양의 메시지

목자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찬양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수많은 천군이 내려오더니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눅 2:14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천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천사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시 19:1

예수님의 성육신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부자나 유명한 사람들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단 한 명의 작은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큰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영광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눅 15:7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평화의 메시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 준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눅 2:14 / ... □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로다

이제 목자들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이 땅에는 평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써 다시 한 번 인류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엡 2:13,14 /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 □□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롬 5:1 /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 □□□□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을 누리자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면 항상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한 평화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적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기적의 날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찬양하십시오,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 14:27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화려한 파티와 값비싼 선물이 아닌 낮고 천한 구유에 누워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구주이십니다.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다른 복음이 아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소서.
2.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소서.
3.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5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라

| 찬 송 |

찬송가 425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 본 문 | 이사야 41:13~16

⁽¹³⁾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¹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과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¹⁵⁾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저 같게 할 것이라 ⁽¹⁶⁾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참 신자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은총의 자녀가 마땅히 남겨야 할 삶의 발자국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3분간 지난 2006년을 돌아보십시오.

※ 2006년을 뒤돌아보며 남겨진 발자국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는 지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도움심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험난한 인생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 41:13 /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끄기를 _____ 할 것임이니라

이 세상은 신자들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악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매우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사 41:14

하나님은 가장 악한 자들을 일으켜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두 제자를 뽑을 때 영리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혹은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보잘 것 없는 사람들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신 7:7 /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_____

주님 자신도 말구유에서 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악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복음 전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 특별한 도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 41:15 /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
들을 쳐서 □□□□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거갈게 할 것이라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로 만들다니 얼마나 강력
한 힘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
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모
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 28:20 / ... 불찌어다 _____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님으로부터 올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120
명의 성도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겸손히 엎드려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날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늘었습니다(행 2:41).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
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요 17:17-19 / 저희를 진리로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
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
님과 우리의 교제가 다른 사람에게로 넓혀지기를 원하십니다.

행 2:46,47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 41:16 /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
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베드로와 요한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행 4:19,20).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돈이나 명예, 심지어 자유까지 잃게 될 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세상을 의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 16:25,26

십자가로 路

교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을 뒤엎어 놓을 수 있습니다.

행 17:6 / 발견치 못하매 아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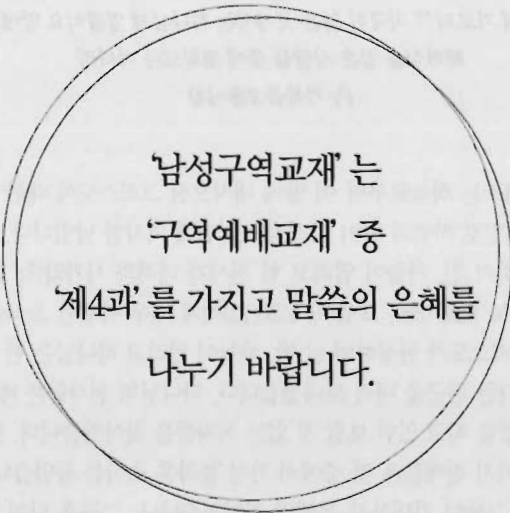
골 2:15 /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_____

2006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2.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세상을 뒤엎어 놓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교재



‘남성구역교재’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천사들과 목자들

⁽⁹⁾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¹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¹¹⁾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 하노라 ⁽¹²⁾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¹³⁾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¹⁴⁾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¹⁵⁾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8~14)

크리스마스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때야말로 하늘과 땅이 기적적으로 함께 역사한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하늘이 열리고 한 천사가 내려와 사가랴(눅 1:5-20)와 마리아(눅 1:26-38), 요셉(마 1:20,21)에게 매우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던 날 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은 한 천사가 아니라 허다한 천군을 내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보잘 것 없는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이 목자들은 지금까지 전해들은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평소와 같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한 천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늑대라면 모를까, 천사라니 그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는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그 때 하늘이 다시 열리더니 허다한 무리의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참으로 기적의 밤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또한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주 탄생의 메시지

하늘의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는 이 땅의 목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10,11절). 목자들은 구세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지자 미가의 예언대로 마침내 약속된 메시야가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부자나 고위 관리를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난하고 천한 목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특별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침내 오셨다는 사실을 목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가장 확실한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12절). 핵심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의 주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받은 목자들은 그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밤에 그들이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은 바로 그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구세주는 아주 특별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만나주었습니다.

찬양의 메시지

목자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찬양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수많은 천군이 내려오더니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는 하나님께 영광이요”(14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천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9:1은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밤낮으로 천사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높은 영광은 그분의 구원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15:7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왜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했는 지 아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부자나 유명한 사람들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단 한 명의 작은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큰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영광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화의 메시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14절). 이제 목자들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땅에는 평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써 다시 한 번 인류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2:13,14은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 주님은 낮고 천한 장소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예수님께서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시면 항상 평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여러분에게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겸손히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그들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한 평화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이 말구유에서 발견했던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반드시 응답하십시오. 정말로 오늘 하늘과 땅이 함께 역사했던 크리스마스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가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깊은 평화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목자들은 그날 밤이 크리스마스가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오늘날처럼 선물이나 카드, 나무를 사는 등 하잘 것 없는 일에 모든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만들어 장사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구유 안에서 여러분의 왕, 전능하신 왕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천사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 각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께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평화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아멘.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 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6년 12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발행처 | 매일묵상 : 황진섭(1-7일), 양재웅(8-15일), 유재진(16-23일), 김철규(24-31일)

구역예배교재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